

노인주거의 커뮤니티 형성공간에 관한 기초적 연구

A Basic Study on the Community Space of Elderly Living Facilities

정상선* / Jeong, Sang-Sun

박영기** / Park, Young-Ki

Abstract

From the year 2000, Korea comes into the aging society and this increasing will be an important social problem. As the elderly growing rapidly, the various types of the elderly housing residence have been developed. The elderly who live in these residential facilities go through communal living, and various community has been happened. For that reason we would research the community space of elderly living facilities, and first analyzed space program of those. After this, we'll analyse managerial programs and observe elderly's behavior in community space.

키워드 : 노인주거, 커뮤니티 형성공간, 공용공간

Keywords : Elderly living facility, Community space, Public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06년 현재 전체인구 중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자 규모증가에 의하여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로시설, 실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시설의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즉 노인의 주거 유형은 그 동안 생활해온 자가주택에서 노인의 특성에 맞도록 주택개조 등을 실시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는 방법과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령자용 공동주택 또는 공동생활시설 등에 입소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일생을 독립적으로 생활해 온 고령자가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하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공동생활시설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 대한 도면분석을 실시하여 커뮤니티 형성공간의 구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노인공동생활시설 내 커뮤니티 형성공간의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시설은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고령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공동생활공간으로써, 노인복지법 상 무료·실비·유료 양로시설과 실비·유료 노인복지주택, 무료·실비·유료 요양시설, 무료·유료 전문요양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및 커뮤니티형성공간의 정의 및 특성을 정리하였다. 둘째, 국내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커뮤니티형성공간의 구성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의 유형별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도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커뮤니티형성공간의 구성특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할 연구과제를 제언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의 특성

(1)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사회발전의 결과로 1990년대에는 3.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7.2%로 증가하여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후 노인인구비율은 2006년 현재 9.5%이고 통계청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로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약 18년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1> 노인인구 및 비율 (단위 : 만명, %)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701	4,830	4,887	4,934	4,904
노인인구	339	459	536	707	1,022
비율	7.2	9.5	11.0	14.3	20.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주거·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2011년 완전수요충족을 목표로 매년 100여개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매년 1,600억원 투입)할 계획이어서,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의 종류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은 입소 또는 주택 분양 및 임대를 통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에게 급식 또는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표 2>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의 종류

구분	설치목적
(무료·실비·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유료)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무료·실비·유료)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무료·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2.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공간의 이론적 고찰

(1)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의 특성

민예홍(2005)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내에서 입소자 대 입소자, 또는 입소자 대 직원, 입소자 대 외부인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social activity)를 친교(親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고령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는 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대화 또는 함께 행하는 행동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다른 거주노인들을 관찰하는 행동을 소극적인 사회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히긴스(Higgins, 1959)는 주택과 다른 주거시설의 특성으로서 공용공간의 설치, 공동생활, 사람·공간 등의 낯설음, 형식적이고 친밀감이 부족한 점 등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표 3> Higgins의 시설(institution)과 주택(home)의 차이점

시설(institution)	주택(home)
1. 공공공간, 프라이버시의 제한	1. 개인적 공간, 가끔 프라이버시의 제한
2. 낯선 다른사람과 함께 거주	2. 거의 혼자 살거나 친척, 친구와 거주
3. 전문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	3. 직원은 없으나, 서비스제공을 위해 방문
4. 형식적, 친밀감 부족	4. 비형식적, 친밀함
5.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음	5. 가족간의 성관계 허용
6. 다른 기관이 소유	6. 거주자가 소유 또는 임차
7.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대규모	7. 다양한 크기지만 대부분 소규모
8. 선택권과 개인적 자유가 제한	8. 선택권과 개인적 자유 행사
9. (사람, 공간 등) 낯섬	9. (사람, 공간 등) 친밀함
10. 공동생활	10. 먹고 자고 여가생활 등 개인적 생활

Higgins(1989), Defining Community Care : Realities and Myths, p.15 ; 유병선

이와 같이 고령자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접촉은 고령자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된다. 사회적 접촉은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을 육성할 수 있지만, 부족하면 고독감과 소외감을 갖게 될 수 있다. 노인들만의 동년배 집단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이점의 하나는 동료 집단과의 왕성한 교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이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웃, 친구와의 사교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같다¹⁾.

이에 거주노인들의 사회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거주노인들의 문화, 오락, 사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될 수 있는 복도, 홀, 알코브, 거실 등의 공용공간의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커뮤니티 형성공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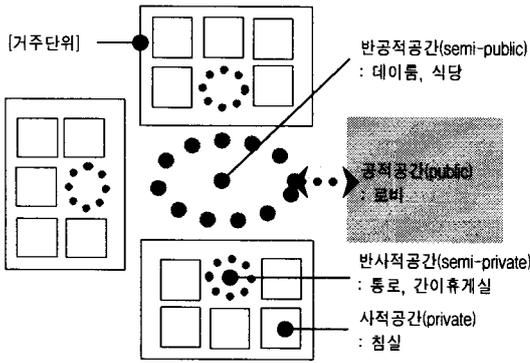
고령자공동생활시설 내 단위공간들을 기능단위로 구성하면 <표 4>와 같다. 이 중 거주자들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은 거주 및 간호단위로서 침실, 테이블, 식당, 공용휴게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등 거주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해당된다.

<표 4>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내 기능단위 구성(권순정, 2002 재인용)

기능단위	관련시설
거주	침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테이블, 식당 및 조리실, 생활보조원실
간호	공용휴게실, 오락실, 상담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등
관리	사무실, 창고 및 부속시설, 의무실, 자원봉사자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조리실

권순정(2002)은 노인의 인지범위 및 활동정도에 각각 대응하면서 거주노인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위계적 구성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고령자공동생활시설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면 <그림 1>과 같다.

1) 임철우·윤종숙, 노인을 위한 공간, 경춘사, 1993



<그림 1>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의 위계적 공간구성

고령자공동생활시설의 1차적 공간은 침실로서 사적공간이며 기초적인 생활공간이 된다. 침실의 단위집합체인 거주단위 내 복도 및 알코브 등이 2차적 공간인 반사적공간이며, 입소자들의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가 시작되는 거주공간의 확대영역으로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준비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식당, 휴게실, 오락실 등은 반공적공간이자 3차적 공간이며, 관리체계에서 제공되는 활동이 주되기 때문에 일부는 인위적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

3. 사례 조사

3.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커뮤니티형성공간의 공간구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1차적으로 고령자공동생활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유형별 1개씩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 현장답사가 가능하였던 시설 3곳을 도면분석대상으로 최종선정하였다. 각 시설은 2007년 4월 12~14일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면분석을 하였다. 각 시설의 개요는 <표 5>와 같다.

3.2. 각 시설별 커뮤니티형성공간 구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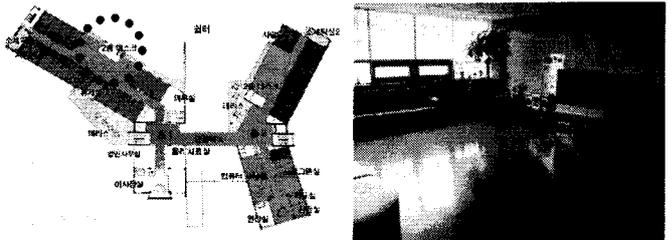
(1) 양로시설 A

A시설은 3개의 거주단위가 복도로 연결된 선형건물이다. 거주단위는 1인실 16개와 거실 및 복도의 단위와 2인실 8개와 거실 및 복도의 단위의 두 종류가 있으며 동일층에는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 연결복도 등이 함께 구성된다.

특이한 사항은 식당 및 강당, 종교실은 1층에, 체력단련실은 4층에 배치함으로써 입소자들이 건물내에서 수직적 이동을 하게끔 유도하여, 수평적 공간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수직적 공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 거주단위에 구성된 거실공간에는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간이주방과 테이블, 쇼파, 오락기구 등이 설치되어 입소자들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특징이 있다.

<표 5> 조사대상 개요

시설	A	B	C
주거유형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시기	2004.12	2004.11	2003.09
입지	도시근교형	도시근교형	도시근교형
층수	지하1층, 지상 4층	지하1층, 지상 2층	지상 4층
연면적	3200㎡	1,325.68㎡(401.72평)	2,720.10㎡(822.83평)
인원/정원	82/100	50/50	61/65
직원수	18	14	30
평면(1층)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1층 : 사무실, 강당, 예배실, 식당 및 주방, 자원봉사자실, 영안실, 상담실 · 지상2층 :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거실, 사무실, 침실, 세탁실 · 지상3층 : 의무실, 이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거실, 침실, 세탁실 · 지상4층 : 세탁실, 욕상정원, 침실, 거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층 : 기계실 · 지상1층 : 중앙홀, 사무실, 원장실,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방, 세탁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 지상2층 : 침실, 6인실(1개), 오락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욕실, 탈의실, 생활지도원실, 배식실, 전실,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1층 : 사무실, 자원봉사실, 세탁실, 숙직실, 락커룸, 화장실, 홀, 주방, 식당, 욕장, 원장실, 연구실, 복도 · 지상2층 : 물리치료실, 의무실, 간호실, 5인실(8개), 배식실, 홀, 거실, 샤워실, 복도, 일광욕실 · 지상3층 : 5인실(4개), 중환자실(2개), 간호실, 배식실, 홀, 직원숙소(4개), 거실, 일광욕실, 샤워실, 복도 · 지상4층 : 창고, 기도실,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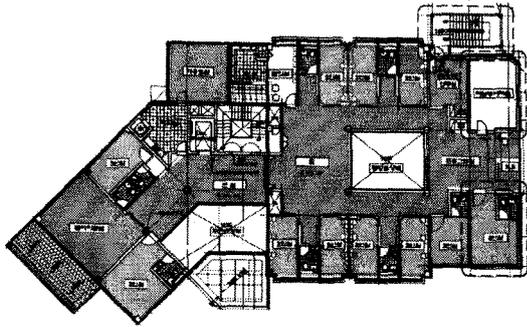


<그림 2> 시설 A의 기준층 평면도 및 거실사진

(2) 노인요양시설 B

B시설은 2인실 2개와 화장실이 하나의 유니트로 조합되어 가운데의 중앙홀을 둘러싸고 있다. 현재는 2층 건물이지만 4층 규모로 증축하고 있으며, 중앙홀의 보이드 공간은 4층까지 연속성을 띠며 확장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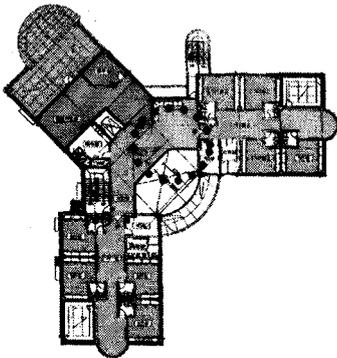
침실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노인은 대부분 중앙 거실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은 1층과 보이드로 연결되어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각 층의 중앙거실에서 독서 및 오락활동, 프로그램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다른 시설에 비하여 공용공간의 설치가 다양하지 못한 반면, 중앙 거실의 활용성이 높아 공용공간에서의 노인 행태관찰을 실시하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시설 B의 기준층 평면도

(3) 노인전문요양시설 C

C시설은 7자 모양의 4층 건물로서 5인실을 거주단위로 4개 실과 복도가 하나의 거주단위를 이루고 있다. 화장실을 복도에 배치하고 침실을 후퇴시킴으로써 복도공간을 확대하여 알코브 공간을 형성하였다. 중앙 홀에는 쇼파와 오락기구가 설치되어 낮시간의 노인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환자가 많기 때문에 입소자의 절반 가량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층별 실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식당과 목욕실이 있으며, 중앙홀은 외부공간과 연결성이 좋아 산책로의 연장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 시설 C의 기준층 평면도 및 거실사진

3.3. 기준층의 커뮤니티형성공간 규모 분석

각 시설별로 기준층의 공간규모를 분석한 결과 침실의 면적이 전체의 20~30% 정도 차지하는 반면, 복도 및 거실, 기타 휴게공간과 공용시설로 구성된 커뮤니티형성공간은 전체의 55~6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대상 시설 3곳 모두 복도공간을 확대하여 단순한 통로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의 홀뿐만 아니라 복도공간에 알코브를 활용한 거실 공간을 마련하여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조사대상시설 공용공간 규모(단위 : m²)

시설	A	B	C
기준층 면적	1,334.52	772.64	858.55
침실	435.6 (32.64%)	197.76(25.60%)	193.61(22.55%)
커뮤니티형성공간	755.28(56.60%)	428.46(55.45%)	567.79(66.13%)
복도 및 거실	366.03	313.33	249.29
기타 휴게공간	186.75	222	230.5
공용시설	202.5	92.93	88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고령자를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의 제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공간의 계획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고령자 공동생활시설의 유형별 총 3곳을 선정하여 공간구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자의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침실을 비롯하여 복도 및 거실,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식당 등 고령자가 자의에 의하여 이용하는 공간들이 될 수 있으며, 고령자 공동생활 시설 내에서 이러한 공간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침실보다는 복도의 알코브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거실과 중앙홀의 비율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 공간에서 노인의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간구성특성을 바탕으로 노인의 행태관찰과 운동프로그램 등의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공간의 바람직한 계획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권순정, 노인요양시설의 위계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4호, 2002
2. 민대홍,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친교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논, 2005
3. 서유석, 양로원과 근린생활권의 관계성 및 시설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4
4. 양세화 외,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03.06
5. 정소이 외, 이커가이 데이서비스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과 활동장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0
6. 정준수, 시설입소노인의 주생활행위에 나타난 생활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논, 1998
7. 한균 외,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의 복도공간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05.03
8. Gillian Harper Ice, Daily life in a nursing home. Has it changed in 25 years?, Journal of Aging Studies 16(2002)